

사회 참여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흔히 한국불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사안 중 하나는 '사회 참여'이다. 사회 참여 부문에서 불교계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의 근대부터 현대까지 선각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회 참여 운동이 진행돼 왔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불교계의 사회참여는 항일운동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투쟁전선에는 전 민족이 계급과 성별을 떠나 동참했고, 불교계도 일임을 담당했다. 만해 스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국의 독립을 외쳤으며, 용성스님은 산업 장려 등을 통해 독립을 정취하려 했고, 운허스님은 교육사업을 통해 조선독립의 기반을 다졌다.

'민중불교' 씨를 뿌리다

광복 이후에도 불교계 사회참여는 지속됐다. 1945년 12월 불교청년당이 결성돼 교도회 실시를 요구했으며, 조선불교청년동맹은 삼일당(三一黨)을 결성해 전제동포(戰災同胞) 구제와 정치활동을 진행했다.

1946년 1월에는 신락통치에 반대하는 전국 승려대회가 소집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학교를 인수해 교육사업을 펼치는 등 해방정국에 참여하고자 하는 불교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시대였다.

하지만, 불교계는 1954년 이승만 前 대통령의 '정화유사'로 촉발되는 정화운동은 잠시 대중과 함께하는 '사회 참여'라는 큰 물줄기에서 내려온다.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내부 정화가 먼저였기 때문이다.

1962년 통합중단으로 조계종이 출범하게 됐으나, '비구-대처 대립'이라는 그간의 모순을 그대로 안고 있는 설정이었다. 승가가 정화운동에 매진하고 있을 당시 그나마 독재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것은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학생들이었다. 실제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1960년 4.19혁명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동국대 학생들이었다.

4.19혁명에 참가한 동국대 학생들은 현수막을 앞세우고 경부대로 달려가 '이승만 독재 정권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했다.

하지만, 4.19혁명을 제외하고는 1960~70년대의 불교계는 어용과 참여 부문에서 갈갈질갈하고 있었다. 특히 사찰령 유습·불교 재산관리법 등장 등과 같이 정권에 예측되는 상황이 자주 보여졌고 반공 이데올로기와 맞물리면서 부각된 '호국불교'는 불교를 어용으로 굳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다.

실제 당시 불교계는 박정희의 삼선개헌 '날치기 통과'가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복규규탄집회나 반공결기대회 등과 같은 대형 반공행사도 자주 열렸다. 심지어는 1975년 12월 17일 조계사에서 1만5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호국승군단' 발족식이 열리기도 했다.

1970년대 초부터 민주화대열의 전면에서 함께한 스님은 법정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개신교계의 합석 현 선성 등 민주 인사와 더불어 박정희 정권에 맞선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양심이었다. 법정 스님은 다른 종교인, 지식인들과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불교계의 자성도 일어나게 된다.

또한 불교계 학생들과 청년들은 '민중불교' 담론의 씨를 틔우며 암울한 시대의 폭거에 항거했다. 민중불교운동의 1세대라고 불리며 80년대 불교민

중화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故 여익구 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출감한 후, 1975년 3월 '민중불교회'를 최연·전재성(현 한국 빼알리성전협회 대표)·고준환·황석영·고은 등과 함께 결성했다. 하지만, 조직완성 과정에 있던 '민중 불교회'는 그해 8월 여익구와 전재성이 구속되면서 막을 내렸다.

이후 전재성은 전서암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 월간 <대화>에 '민중불교론'을 발표하고 민중불교운동의 주체는 민중이며, 이를 망각할 때 종교운동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중불교운동이라

민중불교

70년대 故 법정 스님 민주화 참여 故여익구·서동석 등 민불련 창립 '깨달음의 사회화' 중단적 발전 민주화·사회참여 운동 초석 다져

통일불교

1970년대부터 남북불교교류 물꼬 신계사·영통사 등 복원까지 확대

환경불교

불교생태운동, 환경운동 지형 바뀌 도법·수경·지울 스님이 견인차 역할 조계종 차원 환경위 구성해 대응

는 이념적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전재성의 '민중 불교론'은 그 의미가 크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 외치다

1980년의 시작은 시민들의 죽음으로 알려졌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으로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를 중심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인과 재야인사를 체포했고, 전국 대학에는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광주민주화항쟁에서 지역 불자들이 스님들보다 분명히 일어났다. 광주 무등산 중심사 스님들을 비롯해 재가불자들의 항쟁은 시민들의 용기를 북돋았다. 대불



2003년 5월 새만금 갯벌 간척 반대 3보 1배를 마친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가 서로를 안고 오열하고 있다.



2006년 1월 동국대 일산병원에 입원한 지울 스님. 초월적 단식 투쟁을 통해 천성산 생명불이들을 살리고자 했던 스님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2003년 금정산, 천성산 고속도로 반대 시위. 불교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사업은 강행됐다.



지울 스님이 도통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런 김동수 전남지부장은 당시 부상자들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공수부대의 흉탄에 운명을 달리했다.

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의 경우 5.18 민주항쟁 이후 광주 문민정사를 거점으로 대학생 불교 청년들을 모아 대학생 불교연합회를 결성하는 등 대승불교 사상에 입각한 민주화 인권 운동과 통일 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역동적인 사회 활동을 펼쳤다.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도 암울했던 시대를 시로서 비판하며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다.

불교계 역시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지리한 중단 분규를 마감한 당시 불교계는 1960~70년대 보여줬던 '어용·호국불교'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울 스님은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민들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6월 6일 광주로 내려가 시민들을 만나고 구호품을 전달했다. 7월 25일에는 어용불교단체였던 한국불교총연합회와 전한 국불교회에서도 탈퇴하는 결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불교 자정을 비롯해 호국불교 비판·불교 관계법 개정 등 다각적으로 불교의 위상을 세우려고 했던 당시 불교계의 노력은 10.27 법안이라는 조유의 훼손사건이 발생하며 산산조각 난다.

1천6백년 한국불교역사 내에 최대의 훼손사건으로 불리는 10.27법안은 당시 청년불자들에게 독재 정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곱씹어 보게 했다.

칼날 같은 계엄의 시기에 합법적인 사회운동을 할 수 없던 진보적 불자 학생들은 운동의 공간을 바꿔 사찰을 중심으로 근본불교의 정신을 찾고자 하는 '여래사(如來使)운동(사원화 운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불교사회주의 운동 규정때 법우 스님을 비롯해 최연·신상진 등이 구속되면서 중단됐다.

1970년대 후반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민중불교운동'의 불씨는 1980년대에서는 멈추지 않고 타올랐다. 젊은 스님들과 진보적 학생들이 민중불교의 기치를 세우고 주도한 불교민주화운동은 마침내 민중불교연합을 창립하기에 이른다. 민중불교연합(이하 민불련)은 1985년 5월 4일 광화문 교보빌딩 뒤편에서 고은·계훈제·문익환 목사 등 재야인사와 진관·성연·현기스님·여익구·최연·서동석 등 스님과 청년불자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초대대장에 故여익구가, 상임 지도위원에는 고은이, 부의장에는 진관 스님 등이 추

대됐다. 민불련은 기관지인 <민중법당>을 발간하고 당시의 운동 경과와 사상 정립에 대한 글들을 실어 민중불교운동의 확산을 꾀했다. 그만큼 정부의 탄압도 극심했다. <민중법당>은 통권 5호에 실린 운동론을 근거로 이적단체 규정돼 3기 집행부 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 여파로 민불련의 조직적 활동은 중단된다.

민불련이 1989년 해체될 때까지 보여준 활발한 활동은 불교계의 운동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1980년대 대표적 노동착취 기업인 성도섬유 규탄집회에 주도적 참여했던 여성부 간사 김애라는 연행돼 구류를 받았고, 1985년 구로공단의 대우어패럴 파업을 계기로 촉발된 동맹파업 당시 파업 현장에 대한 지원 및 농성도 어느 단체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86년 민주통일민중연합이 중심이 된 민주제 개헌 요구투쟁에서도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낸 것도 민불련이었다. 또한, 불자 故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에도 적극 가담해 6.29선언을 이끌어 냈다.

민불련의 운동적 역량이 폭발했던 것은 1980년대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최대 가두시위로 알려진 '5.3 인천사건'에서다. 민불련은 '1986년 5.3 인천사건'

2559년 석가탄신기념 능인계향 특별한정판 출시

능인계향에서는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를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능인계향을 출시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제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에 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능인계향은 '초파일까지' 한정특가로 공급됩니다.

1차분 전량 매진!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2차분 순차 발송중입니다.

■ 한정특가 : 15,000원

(초파일 이후 정상이 30,000원으로 환원되며 현지 사정에 의해 단종될 수 있습니다.)



능인계향



불기 2559년 하안거



참나를 찾는 90일간의 여정

재가안거 수행결사

수행기간 : 불기 2559(2015)년 6월 1일 ~ 8월 28일

-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동참자를 모집합니다 -

재가안거 수행은 나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이고 수행자임을 자각하는 실천입니다.

재가안거 수행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고 자신의 본래면목을 참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90일 수행이력 성취 시 인거증이 수여됩니다.)

대상 인거 기간 수행을 실천하고 이를 점검받기 원하는 모든 재가인도

방법 부처님의 제자임을 자각하는_삼귀의 나와 이웃의 행복을 발원하는_수행서원문 염송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_1일 1선행 대중의 역량에 맞추어 수행하는_선택수행

접수 기간 2015년 4월 21일 ~ 5월 29일

접수 및 문의 재가안거 수행결사 운영 사찰 중무소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051)501-7554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능인향당 051)746-6818 / 02)3663-6777
www.nihwa.com 홈페이지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사회 참여

질곡의 현대사 아픔과 갈등을 보듬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진행된 불교계의 민주화 시위. 자비 무적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민불련의 <민중불교> 창간호. 발행 때마다 민불련 회원들은 고초를 겪었다.



2006년 신계사 낙성식. 남북불교 교류의 새장을 열었다.



불교 최초 통일단체인 평화연합 창립 10주년 기념대회 모습.

불교적 환경운동, 세상과 소통

한국 현대 시민운동사에서 불교가 가장 큰 족적을 남긴 분야는 단연 '생태·환경'이다. 1990년대 이후 개발 담론으로 나타난 환경 위기에 가장 열정적으로 대응해온 곳은 불교계였다. 불교 환경운동은 1988년 출범해 1991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 한국불교환경교육원(에코붓다 전신)에서 시작된다. 1992년에는 월주 스님을 중심으로 '청정국토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전신인 '공해추방불교인모임'이 결성됐으며, 김재일 씨를 중심으로 1994년 '두레생태기행'이 만들어지면서 에코투어리즘을 바탕으로 한 생태 답사가 진행됐다. 김재일 씨는 2002년 사찰생태연구소를 만들면서 불교와 사찰의 환경문화와 생태적 전통을 발굴·연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생태 보존에 대해서 중단적 관심이 촉발된 것도 이 시기다. 1996년 11월 22일에는 '사찰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 불교사 주지대회'가 해인사에서 열렸고, 이를 계기로 12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산하에 20여 명의 전문위원을 둔 사찰환경보존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조계종은 2000년 총무원장 직속 산하 기구인 환경위원회를 발족하게 된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국가 주도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됐다. 여기에 사찰 수행환경 침해와 더불어 자연환경이 파괴에 대한 불교계의 반대 목소리는 커져갔다. 정부의 지리산댐 조성을 막기 위해 출범한 '지리산 살리기 캠페인'을 추진하며 '불교교연대'는 곧 국민 조직으로 발전했으며, 그 여세를 힘입어 불교환경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창립된다.

법륜 스님은 독립적인 행보를 보였다. 스님은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민중서로돕기운동본부의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남북 통일 사업을 진행해 왔고, 이후에는 좋은 벗들과 평화재단을 설립하고 북한과의 교류, 인권 신장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불교적 환경운동은 도법·수경·지을 스님 중심으로 이뤄진다. 도법 스님은 2003년 '지리산 생명평화결사'를 창립하고 2004년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3일까지 5년여 간 생명평화 탁발순례를 진행한다. 또한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출범해 귀농운동과 생협운동 등 도농상생공동체 설립에 각고 노력을 하고 있다.

도법 스님의 동반인 수경 스님은 자신의 몸을 내던지면서 환경운동에 매진했다. 2001년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를 맡은 수경 스님은 새만금 갯벌 간척 반대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스님은 문규현 신부와 함께 2003년 3월 28일 부안 새만금 해창깃벌을 떠나 5월 31일까지 65일간 총 305km를 3보 1배를 하면서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했다. 당시 스님은 과도한 3보 1배로 무릎을 크게 상해 수술을 받고도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자신을 희생했다.

지을 스님은 목숨을 걸고 자연과 생태를 지켜냈다. 천성산 도동농 도동농 28명에 대한 장학금과 밑반찬 등 생활지원과 대학 원용적 사고를 지닌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을 스님이 진행한 '도동농 소송'도 한국환경운동사에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2003년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 도동농과 도동농의 친구들(대표 지을)은 2003년 10월에 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원효터널) 13.2km 구간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일명 도동농 소송)을 냈다. 자연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간이 대신해 소송을 낸 사례로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그 사례가 있어왔으나 한국에서는 같은 소송이 진행된 것은 두 번째로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법원은 "자연물인 도동농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 능력(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현행 법률이 없다"고 원고 부작위 판결을 내렸다.

불교계와 시민사회가 앞장서 대규모 개발 사업 반대했지만 새만금도, 천성산도 모두 국가 개발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이 진행됐다. 결국 '이슈 파이팅'을 위주로 진행되던 환경운동은 시민 참여 확대라는 숙제를 남기고 전환점을 맞게 된다.

'사회 참여' 불교의 영원한 하두

민주화로 시작한 불교의 사회참여는 현대사 속에서 통일, 인권, 환경 운동으로 확대됐으며 다양한 NGO단체를 창립시켰다. 현재에는 다문화, 노동, 국제구호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갈등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대안 문명 공동체로서 불교의 역할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 불교 사회참여운동의 동력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불교계 사회 참여 운동의 교리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연기와 보살행이다. 박수호 덕성여대 교수는 '한국불교사회운동의 이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이 같은 연기와 보살행을 불교사회운동의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연기법에 근거하면 현상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존재는 서로 분리가 불가능한 '상즉상입(相即相入)'하는 동일체이며, 이는 나와 무관해 보이는 사회 문제들이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준다"면서 "자비와 회향의 보살행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원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한국불교 사회 참여의 과제는 무엇일까? 종교지형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불교계가 필요한 것은 시민의 삶을 고려한 '시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윤승용, 깎뎀 <한국인의 종교> 보고서) 이를 위해서는 전 지구차원의 환경 위기와 자본주의 모순, 계층간 상생 등의 사회 과제에 불교계가 친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도훈 한양대 교수는 '광복 후 한국 사회문제와 불교의 대응 및 지향점' 논문에서 "이제 불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전달할 추진 기구를 만들고 마스터플랜을 짜고 로드맵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구제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등을 포용하고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할 불교공동체 모델을 개발해 현대사회의 대안으로 불교에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을 중심으로 이끌었고, 자연히 안기부 등 공간기관의 주요 타깃이 됐다.

이로 인해 여익구 의장이 수배되고 서동석 집행위원장·진철승 문화부차장·성연스님 등이 구속되는 조직적인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공권력의 탄압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내부적 조직 역량이 단단해진 민불련은 1987년 민주화과정에서도 비중있는 역할을 했다.

이런 민중불교운동은 민주화를 위한 독자적 승가 조직 탄생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6년 5월 9일 조계종 스님 1백52명은 '민주화는 정토의 구현이다'라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스님들을 주축으로 1986년 6월 5일 불교정토구현승가회를 창립하게 되고, 민중불교운동의 열망은 '9.7 해인사 승려대회'로 이어졌다. 이같은 열망들은 이후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중단 캐치 프라이즈로 '깨달음의 사회화'를 천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암울했던 1970~80년대 들불처럼 번져간 민중불교운동은 불교계의 사회참여 역할을 키울 수 있게 했고 1990년대 통일·종단·환경 등 다양한 부문으로 세분화돼 운동이 발전하게 되는 단초를 제시했다.

"南北 함께 삼시다" 통일 염원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남북 분단이다. 남·북한으로 갈라진 현 체제는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문제가 결부되다보니 남·북 양측의 관계 무드에 따라 민간 교류 활동도 영향을 받았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사장 벵타, 이하 평불협)가 발간한 <평불협 20년사>에는 남북불교교류의 역사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남북 불교는 1970년대부터 교류의 형태를 가졌지만 각 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고립적 양상이었다. 이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요구가 사회 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불교가 터졌다. 이 시기를 기해 북한불교가 국제사회와 국내에 서서히 소개되기 시작했다.

남북 불교가 처음 만난 것은 1991년 10월 미국 LA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해외동포 조국 통일 불교도 합동법회'에서다. 해외에서 첫 만남을 가졌지만 합동법회는 곧 국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통일 운동 단체인 평불협이 1992년 2월 창립됐고 본격적인 교류사업이 진행됐다. 초대 회장에는 월주 스님이 추대됐으며,

상임부회장에 법타 스님이 선임됐다. 1993년 7월 13일에는 전국불교운동연합이 창립하면서 사회적 실천운동과 통일 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남북 불교교류는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2000년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며 대북 정책이 변화가 온다. 소위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대북 정책은 남북불교교류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2000년 창립되면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이 이뤄졌고, 전태종은 중단적으로 개성 영통사를 복원했다. 또한 남북 불교계 동시 법회 등 교류행사도 자주 진행됐다.

이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비핵 개방 3000'이 대북 정책으로 발표되면서 남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남북 불교 교류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었지만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2000년대 이후 새터민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사업도 전개되고 있다. 불자로 잘 알려진 남지선 작가는 '통일바라밀살'을 창립하고 새터민 대학생 28명에 대한 장학금과 밑반찬 등 생활지원과 대학 원용적 사고를 지닌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JJUN Heating System Module

“**조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C ~ 50°C)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양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성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9-5577	서평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인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지아형 S형 T분리형

LED대사형 LED홀더대형 간선지초

▶방생, 탐방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